

보도시점 (인터넷, 지면) 2026. 4. 1.(수) **즉시보도**

##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정부 및 재난안전 협력 본격화

- 한-인도네시아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 발표와 연계하여, 인공지능정부 및 재난안전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적 협력 강화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정부 및 재난안전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AI 기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실현하는 ‘AI 기본사회’ 비전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구현하기 위한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선언하였다.
  - \* Global AI Universal Basic Society(AI-UBS) Solidarity Initiative
- ‘AI 기본사회’는 AI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인간 중심의 포용적 전략으로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AI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및 재난안전 혁신은 ‘AI 기본사회’를 공공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다.
- 특히, 양국 간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와 행정 경험을 결합한 AI 기반 서비스 모델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확산함으로써, AI 민주정부 구현과 글로벌 AI 기본사회 확산을 연결하는 실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우선,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공공 분야에서의 지식 및 경험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분야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하고, '25년부터 중단되었던 AI·디지털 정부 협력센터를 '27년부터 재개소하기로 하였다.
- 공공부문에서의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행정 서비스를 함께 개발·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재난안전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 간의 업무협약을 올해 안에 체결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특히 AI 등 신기술을 통해 양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예측과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공유와 공동 분석을 기반으로 과학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 행정안전부는 향후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창출된 행정·재난안전 분야의 AI 수요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윤호중 장관은 “인공지능 기술 혁신은 국가 및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모든 국가와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양국간 협력을 통해 AI 민주정부 모델 확산과 함께, AI 기반의 공공부문 혁신을 민간 생태계와 연계하여 글로벌 AI 기본사회 확산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       |                      |     |                            |
|-------|----------------------|-----|----------------------------|
| 담당 부서 | 인공지능정부실<br>인공지능정부협력과 | 책임자 | 과 장 (직대)이유경 (044-205-2789) |
|       |                      | 담당자 | 사무관 전창석 (044-205-2792)     |
| 담당 부서 | 자연재난실<br>재난관리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송상훈 (044-205-5110)     |
|       |                      | 담당자 | 사무관 한광순 (044-205-5121)     |